

opusdei.org

#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2019-12-24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복음-

✠ 루카의 거룩한 복음. 2,1-14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뉄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 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 목상

여러분은 구원자(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며 고대하던 성조(아브라함, 야곱, 이사악)들의 그 거룩한 갈망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결코 보지 못했던 분을 본 우리의 눈과 많은 사람들이 듣길 간절히 원했

지만 결코 듣지 못했던 그분의 소리를 들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포대기에 감싸여진 창조주, 아기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본 우리는 행복합니다.

구유에서 구세주를 만난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리아의 팔로 구원을 움켜잡음을 관상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의 양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요셉을 바라보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듣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아기를 흠숭하는 목동들을 보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아 온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다림은 끝났고, 하느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복된 크리스마스를 느낍시다.

악마는 지금 아기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그 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관상과 경청, 노래와... 사랑을 위한 날입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당신의 길을 만드십시오. 가서 그 아기를 당신의 팔로 안아 춤을 추며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부드럽게 다루며 당신의 가슴에 가까이 안으십시오... 저는 유치한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실로 보여집니다. 당신의 영혼의 그 친밀함 안에서, 당신은 그 아기를 꽉 안을 수 있습니다.”

## 대장간 345항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저의 어머니  
이신 마리아여, 그 아기를 보여주소  
서!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대영 요셉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12weol-25il-junim-seongtan-daecugil/>  
(2026-1-30)